



기획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원자력 기술 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참석자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렬 외교통상부 남동아프리카과 서기관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수석연구원

박복래 한국전력 SMART(일체형원자로) 추진팀 과장

선중호 세트랙아이(주) 연구개발소장

이재원 (주)올네이션 기술영업팀장

조승희 YTN 보도국 해외방송팀 차장(사회)

- 일 시 : 2007년 2월 9일(금)

- 장 소 : 서울 파이낸스센터

석유시대의 시대 vs. 원자력의 시대. 고유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화석 에너지의 빈자리를 과연 원자력이 메울 수 있을까. 현재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원자력 기술 진출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중인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광재성 교수와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 마련한 중동/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이들 나라들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 이해와 선투자기 시급하다는 데 우선 뜻을 같이 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 원자력 기술 뿐 아닌 산업, 에너지-광물 및 외교적 지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협력이 절실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지원의 정책 마련과 각 부처들의 조화로운 협력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인력 개발 또한 시급한 과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희망적인 목소리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가능성'을 점쳤다.



조승희

YTN 보도국 해외방송팀 차장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원자력 수출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담회는 원자력 분야에서 미개척 지역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우선 원자력 분야의 사업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주제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재성

우리나라 원자력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아주

한국 원자력, 세계의 모범 사례로 관심 높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원천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AEA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원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에서는 원자력을 통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의료, 농업을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해

수 담수화 사업¹⁾, 둘째 방사성 동위원소 사업, 셋째 연구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원자력 기반 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제가 낸 대략적인 결론은 나라마다 분야와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협력 가능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다는 것, 그리고 각 부처들 간의 협력이 무척 필요하고 또 인력 관리와 연수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지역 전문가들의 협력도 무척 중요합니다. 정상 회담도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문성, 사업의 비전 가능성,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와 또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승구

저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젊은 지도층들이 들어서면서 두바이 모델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 OPEC이나 비OPEC 국가들이나 석유 자원을 사회 발전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석유 값이 오르면서 중동에 유입되는 돈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들 자금이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민간, 정부 부분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이 건실해지고 있다는 것도 포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은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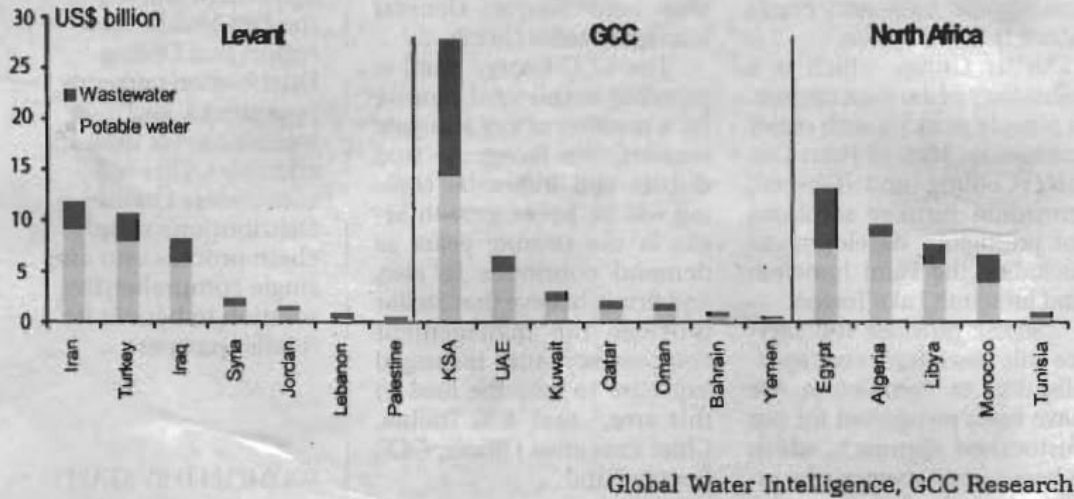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돈을 장기성장 바탕에 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과 인적 자원 확충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중심이던 것이 1.5차, 2차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IT와 정보 통신 사업에도 점차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머리를 빌려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화학 산업도 과거에는 원료를 파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가공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필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인맥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중동의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옛날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전도 사업 하러 나갈 때 외국의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진출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랍 금융이 특유의 전통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아랍 에미리트 현지 신문인 <이브닝 포스트>는 2월 17일자 기사에서 중동 지역 국가들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화를 포함한 수자원 개발 분야에 2005년부터 10년간 총 미화 1조 1,7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Forecasted water and wastewater investments



중동 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개발 투자 계획

현재 원유 중심 전력 구조인 중동 지역에 에너지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될 경우,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경쟁력을 찾으려 해야겠지요. 실제로 해수 담수화 사업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중동 지역에서 기술력 1위 업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미개척 분야, 개발도상국에 나갈 때 반드시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딪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문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크기와 자유도에 따라 접근을 차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박복래

저희도 아프리카와 중동 진출은 이제 시작 단계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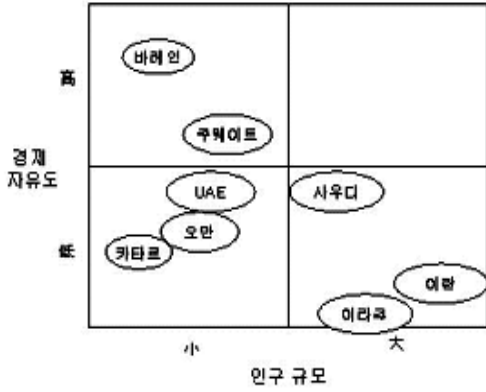
수출 이전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필수

입니다. 사실 원자력 수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에 제3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막대한 시장에 저희가 진출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품개발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개발에 몰두한 것이죠.

저희는 의외로 시장이 큰 곳으로 북아프리카를 꼽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저마다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자력으로 해수 담수화하는 방안은 물론,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 저희들에게 접촉해오는 아프리카 국가 중 리비아가 첫 번째 추진 대상입니다. 리비아 배수로 공사 이후 한국과 리비아의 관계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IAEA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IAEA에서 한국의 SMART를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리비아는 큰 틀에서 네 가지 합의를 하



중동 산유국의 특성 구분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원자력 기술 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복래

한국전력 SMART 추진팀 과장

고 전력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조만간 실무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알제리도 SMART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절실히 느낀 점은 원자력의 특성상 민간 기업만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울타리를 치고, 즉 양국 정부끼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 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장애물들이 술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줘야 합니다.

조승희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 사회적 책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출, 수입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무기화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자력은 특히 평화적 이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이동렬

사실 그 동안 우리는 아프리카에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24년 만에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이번 순방의 의미는 굉장히 큼니다.

아프리카와는 UN의 MDG(밀레니엄 개발 목표)²⁾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협력 방향으로, 주요 내용은 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공적 자금 3배 확대와 차세대 청소년 지도자 1,000명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외교의 방



김영식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남아공 광물에너지부 Noxina 국장의 협력 방안 논의 (2007. 2. 12, 서울)

2)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 :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 모인 정상들이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합의한 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은 1. 빈곤·기아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2. 초등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3. 양성 평등·여성 지위 향상. 4. 영아 사망률을 낮춘다. 5. 모성 보건을 향상시킨다.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과 싸운다. 7. 환경 지속성을 향상시킨다. 8.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



이동렬
외교통상부 남동아프리카과 서기관

정부가 먼저 나서서 큰 틀의 협력 체제 마련해야

항상 원자력이 우리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 쪽에서 보면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나라가 아프리카 중 인구와 자원이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 두 번째가 디알 콩고입니다. 디알 콩고 같은 경우 이제 겨우 내전이 진정됐고, 옛날 인종 학살 등이 있어 복잡했죠. 가까운 앙골라에는 현대, 대우, 삼성 등 조선업이 진출해 큰 성과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가운데 좀 특이한 경우로, 석유가 나지 않는 대신 과학기술이 무척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전력 생산비가 가장 싼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인 정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송전 설비 등이 많이 낡았죠.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에 거의 산업 기반 시설이 밀집돼있고, GDP가 요하네스버그에 70% 정도 몰려있습니다. 2015년에 월드컵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도 하나밖에 없고, 기간 산업이 참 빈약합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시, 군 단위로 작은 발전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차기 수소 에너지 개발할 때 기

초 협력 방안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남아공과는 협력할 여지가 무척 많다고 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쪽에서도 원자력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유전 개발과 발전소, 철도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자력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이전에 법적, 제도적인 완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보이는 관심은 대단합니다. 아프리카 각지에 대사관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명예 백인 대우를 받을 정도로 남아공과 관계가 돈독합니다. 이렇게 중국, 일본은 우리와 많이 비교됩니다. 우리는 남아공에 외교부 실무 한 명이 나가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



국산 환경방사능감시기의 카타르 규제 기관 수출 협의
(2007. 2. 12, 카타르 도하)



이재원
(주) 올네이션 기술영업팀장

카에 대해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야말로 시작 단계입니다.

조승희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 우선 수익을 내려는 욕심보다는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앞서서 기반을 닦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어 중동 지역에 대한 업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원

저희는 비파괴 검사 분야 업체인데, 중동과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근래에는 예멘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을 다루다 보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방사성 관련 장비들을 옮길 때는 다 규제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저희 회사 사장님이 법정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멘에서는 법인 설립이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문을 구할 때 만족할 만한 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사업하는 데 참 힘이 듭니다.

니다.

보유한 장비를 갖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장비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동위원소가 들어가는 장비를 갖고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로 실어주질 않습니다. 리비아에 배로 장비를 싣고 가는 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 캔이나 페인트 같은 물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합니다.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필요

조승희

원자력의 일반적인 사용 말고 농업이나 의료, 식량 등 다른 분야에서의 활로는 어떻습니까? 식량난과 의료난이 심각한 아프리카에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은데요.

이동렬

아프리카의 경우 의료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아 사망률도 높고 전체적으로 열악하죠. 심지어 2015년에는 에이즈 때문에 노동력이 붕괴된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이나 쿠바 등에서 의료 인력을 많이 수입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의 사회 기반 시설이 무척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방사능을 이용한 치료나 암 치료 등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예방 등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조승희

지역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해당 지역 협력에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동향

알제리

대규모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원유와 가스 자원의 감소에 대비하여 미래 재생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부가 말을 하고는 있으나, 당장의 원전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민간 부문 원자력 발전에 활용할 요량으로 원자력법 초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07년 1월에는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정에 사인하였으며, 이란에서도 알제리에 원자력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임. 알제리의 원유 매장량은 118억만 배럴로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23년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150조 입방 피트로 향후 50년간 채굴이 가능함.

리비아

2007년 2월1일 리비아 정부는 프랑스 국영 원자력공사 아레바(AREVA)와 우라늄 탐사 및 채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음. 다만 이 우라늄이 내수용인지 수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리비아는 원자력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농축 관련 장비 일체를 2004년에 미국에 넘겨줌. 리비아는 현재 생산량 기준 60년 채굴 가능한 원유와 막대한 양의 미개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모로코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해수 담수화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

된 바는 없음.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따른 비용이 미화 30억불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ONE 전력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발전량 확대에 필요한 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함.

튀니지

국가 전력 수요의 약 20%를 충당할 900Mwe 급 원전 1기를 2020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나 입찰은 없었음. 다만 2006년 12월 프랑스와 원전과 해수 담수화 사업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이집트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의 여파로 첫 번째 국가 원전 사업 추진이 보류됨.

현재 원전 사업 추진 재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는 해외 투자자 확보되면 8~10년 이내에 1,000Mwe급 원전 1기가 지중해 연안의 다바(Dabaa) 지역에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집트의 계획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제공해왔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1960년대 원자력 무기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바 있음. 1981년 NPT를 비준하였고 현재 2기의 연구용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2004년도에 IAEA는 원자력 연구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failures" in

reporting)을 조사했으나, 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한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2006년 12월 걸프 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마,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와 해수 담수화를 주축적으로 공동 프로젝트³⁾에 사우디도 참여기로 함.

이에 대해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한편, 예멘도 동 사업에 대한 추가 참여 의향을 표한 바 있음.

터키

터키는 미래 전력 부족에 대비하고 총 5,000MW급 전력 생산을 위한 총 3기의 원전을 내년부터 건설에 착수할 계획임. 이전의 지난 30년간 노력들은 내부 환경론자의 반대와 고비용 건설 비용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터키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 보증을 요청하자, 정부 지분을 현재 30%에서 70%로 상향시킬 계획임. 동 사업 입찰에 터키 국내의 Koc 홀딩스와 Sabanci 홀딩스가 참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구매를 국가가 보증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동 사업에는 캐나다, 일본, 한국, 프랑스, 중국이 관심을 표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 2월 12일자 기사 / 번역 · 송부 : 카타르 도하 - 박창호(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진출 방안 모색을 위해, 수출 실적이 있으셨거나 수출을 진행 중이신 업계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종호

저희 회사는 원자력 신규 사업인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다른 주력 품목인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우주방사선 검출 기

술을 원자력에 응용한 제품입니다. 원자력 비발전 분야 사업으로, 말레이시아와 UAE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기간 중 개최된 기술전시회에 우리나라 정부 부스에 참여했는데, 그 때 알게 된 의사 결정자를 통해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은 산업체의 책임이겠지만, 최초 해당 국가의 의사 결정자를 파악하는 시

3) 걸프협력기구(GCC) 소속 6개국 정상들은 2006년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압둘 라흐만 알 아티야 GCC 사무총장은 걸프지역의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활용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2월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압둘라 하마드 알 하티야 카타르 에너지·산업부장관 겸 부총리는 걸프뉴스와 인터뷰에서 "걸프지역 6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기구(GCC)는 석유와 가스 고갈에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중 원전 건설 프로그램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2월 11일자 IHT지는 미국 번즈 국무부 차관(정무담당)도 미국이 동 프로그램의 "willing partner"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결정자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거래의 50%를 성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도 산업체가 사업으로 접근하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가 간 협력 의사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력을 키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학교와 연결해 인력을 키운 뒤 학위를 주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중소기업 혼자서 정보를 모으기는 무척 힘들니까요. 저희 분야의 국제 학회에 자주 참석하고 있는데, 2시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2시간 비행기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국내에서 학회를 주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부처간 협력 우선돼야

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주요 시장이 될 텐데, 소통의 채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복래

수출 도입선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VIP뿐 아니라, 실무자선까지 해당 지역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 협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도 5년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현지 인력 교육 및 교류를 통해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심어줘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1단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선종호
새트랙아이(주) 연구개발소장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실무자 수준까지 확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하려 해도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기본 자료들, 이를테면 도입국의 법규나 규제 등 필요한 인프라 분석을 꼭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나이지리아에 석유 사업과 동반으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상대국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유관 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 부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성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다보니 잘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충분히 구축돼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각 부처 사이의 원활한 협조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정부 협조와 조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템 발굴이 무척 중요합니다. 비발전 분야의 아이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수출 품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